

서울시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사업

온라인 토론회 자료집

#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서울특별시 동물권행동 **카라**



# 프로그램

## 개회

---

14:00~ 환영사 - 임순례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14:10~14:15 카라의 서울시 사업 영상 소개(play)

## 발제

---

14:15~14:30 **발제 01. 서울시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사업 성과와 한계**  
김정아 활동가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2팀

14:30~14:45 **발제 02. 길고양이 보호에 대한 서울시 과제**  
윤민 주무관 | 서울시 동물복지과

## 토론

---

- 좌장 김재영 수의사 | 태능동물병원 원장, 국경없는 수의사회 대표
- 14:50~15:20
1.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길고양이 돌봄 활동  
최혜민케어테이커 | 휘경냥이 대표
  2.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 동물유기문제 및 해결책  
김현숙 주무관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3. 길고양이 상생사회를 위한 케어테이커들의 노력  
양미연 케어테이커 | 중랑길친 대표
  4. 위험한 환경 속 길고양이치료 안정성 마련을 위한 방안  
서정주 수의사 | 이플동물병원 원장

## 질의 응답 및 전체 토론

---

15:20~15:50 질의 응답

# 목차

## 주제 발표

---

- 발제 01. 서울시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사업 성과와 한계 ..... 5  
김정아 활동가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2팀
- 발제 02. 길고양이 보호에 대한 서울시 과제 ..... 25  
윤민 주무관 | 서울시 동물복지과

## 패널 토론

---

좌장 김재영 수의사 | 태능동물병원 원장, 국경없는 수의사회 대표

- 토론자 토론 01.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길고양이 돌봄 활동 ..... 33  
최혜민 케어테이커 | 휘경냥이 대표
- 토론 02.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 동물유기문제 및 해결책 ..... 37  
김현숙 주무관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토론 03. 길고양이 상생사회를 위한 케어테이커들의 노력 ..... 38  
양미연 케어테이커 | 중랑길친 대표
- 토론 04. 위험한 환경 속 길고양이치료 안정성 마련을 위한 방안 ..... 41  
서정주 수의사 | 이플동물병원 원장

---

서울시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사업  
성과와 한계

---

김정아  
활동가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2팀



#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사업 성과와 한계

2020. 12. 22(화)  
동물권행동 카라 김정아  
(정책2팀)



## 목 차

- 01 / 사업의 개요
- 02 / 사업 결과
- 03 / 활동 개요 및 사업지별 특성
- 04 / 사업의 기대효과
- 05 / 나아갈 방향

# 사업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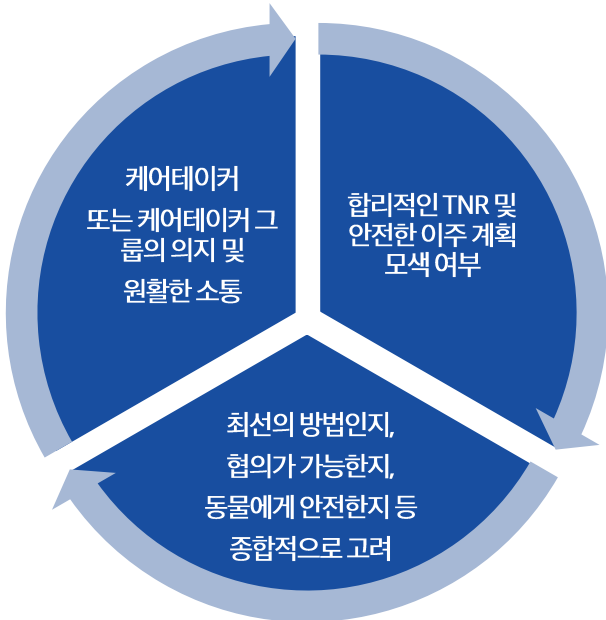
## 1. 사업의 취지 및 목적

- √ 서울시 내 약 600 개 구역이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 (2020년 11월 15일 기준)
- √ 크고 작은 도시 개발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구역에서 자생하던 길고양이들의 생존 문제가 발생함
- √ 문제 해결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조합원, 건설사, 케어테이커들 간의 소통이 매우 필요한 상황
- √ 동물권행동 카라는 길고양이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맞는 다양한 도움 활동을 펼침

사업 기간	2020년 3월 ~ 12월 31일
사업 지역	서울시 전역
사업 대상	서울시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서식하는 길고양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예정) 시민의 반려동물
사업 목적	1.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서식하는 길고양이들을 대상으로 집중 중성화 수술과 치료 제공. 자연스럽게 주변 지역으로 이주 시킴으로써 도시정비구역에서 발생하는 길고양이 문제를 예방하고 길고양이 보호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 시킴. 2.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동물 등록과 중성화 수술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동물 유기를 예방하고 유기로 인해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 절감.

## 2 | 사업의 개요

- 서울시 내 관리처분인가 이전 단계의 재개발/재건축 지구
- 해당 구역에 서식하는 길고양이 및 거주민 반려동물 약 250마리 대상



**동물권행동 카라**

- TNR 및 아픈 개체 치료 활동 직접 참여
- 이주 방법 안내 등 전반적인 활동 과정 조연
- 길고양이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된 문제 해결 도움
-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의 케어테이커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지원

## 3 | 사업 홍보(웹자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지역 이주 예정 가구의 반려동물 '동물등록, 중성화' 지원해 드립니다!**

동물권행동 카라와 서울시는 올해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 사업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길고양이 TNR과 안전한 곳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보호활동 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거주하는 반려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에, 고양이에 대한 동물등록(100%)과 중성화수술(50%) 지원하여 동물 유기와 반려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에 신청자격, 지원대상, 지원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세요!

**동물등록 왜 필요한가요?**  
2014년 1월 1일부터 개별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 군, 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동물이 사망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을 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함과 동시에 고양이의 유기율 예방하여 유기동물 양산율 예방합니다.

**중성화 수술은 왜 필요한가요?**  
중성화수술은 동물의 각종 성식이 질병을 막아주고, 성호르몬으로 인한 행동문제를 예방합니다. 발정기 때의 스트레스 감소와 유실 예방, 실내 영역표시가 줄어들게 되며 또한 원하지 않는 임신 및 번식을 막아줍니다.

**신청 자격**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주 예정인 가구

**지원 대상**  
① 동물등록: 해당 가구의 반려동물(성별不限의 개)  
② 중성화수술: 해당 가구의 반려동물(고양이)  
\*는 6개월령 이하/고양이는 2~2.5kg이하(고양이의 경우 2kg이하) 기준의 단종으로 꼭 병행해 신청하세요!

**지원 내용**  
반려견의 동물등록(100% 지원) + 동물등록 비용 (내담이(아이)구급) / 반려묘/반려견의 중성화수술(50% 지원) \*다만, 다량 개입은 20마리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방법**  
① 동물등록 및 중성화수술 신청서 작성 후, 등록(주민등록번호 차라리 제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과 함께 이메일(seoul@ekara.org) 또는 우편으로 제출  
② 카운터에 서류 확인 후, 담임(이메일) 확인  
③ 평소 다니는 동물병원 또는 원하는 동물병원에서 병용 등록 및 중성화수술을 받은 후, 진료 영수증과 영수증 내역서, 신청서 영의이 촬영사본을 이메일(seoul@ekara.org) 또는 우편으로 제출(카라동물병원에서도 동물등록 및 중성화수술이 가능함)

**모집 기간**  
2020년 9월 30일~12월 24일  
\*지원 대상은 동물등록비용 지원 종료일까지에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 [www.ekara.org](http://www.ekara.org)  
전화 070-4760-7287  
이메일 [seoul@ekara.org](mailto:seoul@ekara.org)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답리 122 동물권행동 카라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울시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사업'

서울특별시 동물권행동 카라

I · SEOUL · U 서울특별시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지구 길고양이 보호활동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시의 동물권행동 카라가 진행하는 "2020년 서울시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 시범사업"에 참여할 케어테이커 또는 케어테이커 그룹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  
서울시내 관리처분인가 이전 단계의 재개발·재건축 지구에서 길고양이를 돌보는 케어테이커 또는 케어테이커 그룹

**지원 내용**  
\* 길고양이 집중 중성화 이주 대책 마련

**지원 절차**  
신청 접수 > 개별 연락 > 현장 조사 > 사업 진행 사전회의 > 사업 진행

**모집 기간**  
2020년 5월 ~ 11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참여 방법(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seoul@ekara.org)로 접수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울시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 시범사업'으로 제출  
\* 신청서는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 '서울시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 시범사업'  
동물권행동 카라  
전화: 02)3482-0999  
이메일: [seoul@ekara.org](mailto:seoul@ekara.org)  
홈페이지: [www.ekara.org](http://www.ekara.org)

주관 동물권행동 카라

# 4 | 사업홍보 (현수막)



# 5 | 사업 홍보(SNS)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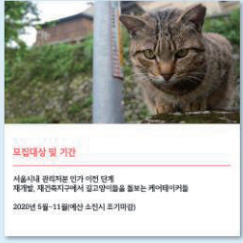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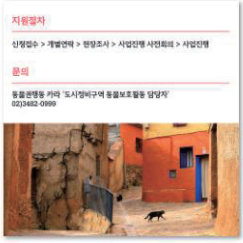
5



6



7



8



9



10



표지\_900x900



# 5 | 사업 홍보(SNS)



1. 표지\_900x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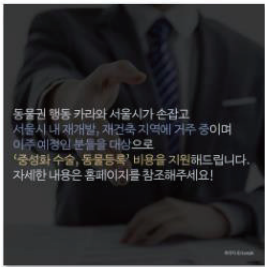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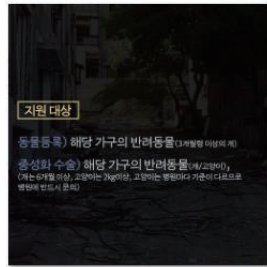
3



4



5



6



7



8

# 6 | 사업 홍보(언론 기사)

**관련 언론기사**

- 2020. 08. 22. 현장 동행 취재한 조선일보 기사





## 7 | 사업 홍보(TV프로그램)



###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 2020. 09. 07.
- 재개발현장 동행 취재/  
KBS TV 프로그램 방영

### [46회]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020.09.07 월



조회 447

## 8 | 사업 홍보

### 버스 광고

- 서울시내 버스 300대 광고



# 사업 결과

## 1 | 사업 결과(재개발, 재건축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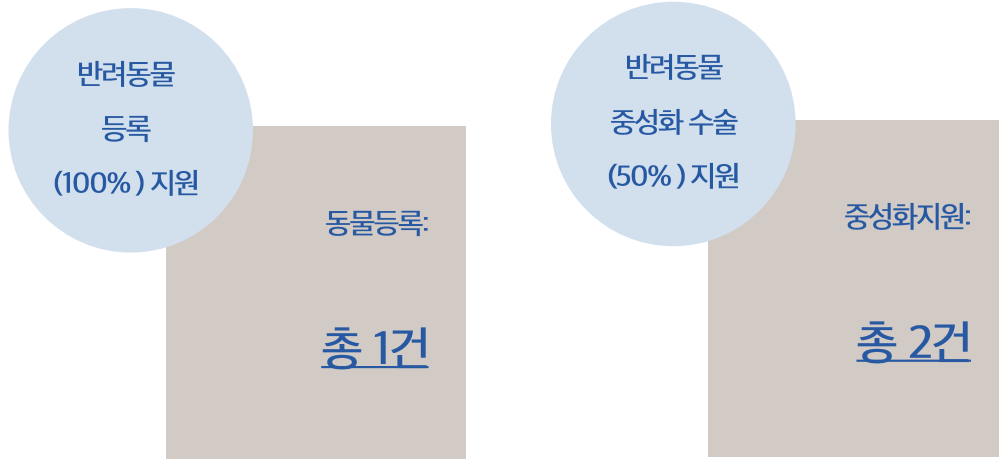
사업지 선정: 총 6곳

1. 봉천 4-2-1 주택 재개발
2. 청담 삼익 아파트 재건축
3. 흥은 제13구역 주택 재개발
4. 방배 14구역 주택 재건축
5.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6.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중성화 수술	치료	기중성화	체중미달	유기묘 (추정)	외출묘	임신묘	중성화수술+치료	합계
봉천동	24	4	1	1	-	-	2	4	31
청담동	17	2(사망 1)	-	-	-	-	-	-	19
흥은동	7	-	-	-	-	-	-	-	7
방배동	8	5	1	4	-	-	-	1	17
중화동	11	7	-	1	1	1	-	1	20
휘경동	23	31(사망 1)	1	-	-	-	-	4	48
합계	86	49	3	6	1	1	2	10	142

## 2 | 사업 결과 반려동물 중성화수술 및 동물등록 지원

- 사업기간: 2020. 9. 30 ~ 현재까지
- 사업대상: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거주 중이고 이주 예정인 가구의 반려동물(개, 고양이)
- 사업실적: 총 3건



## 3 | 성과 및 평가



### <성과>

- 도시정비구역에서 길고양이 돌봄, TNR을 진행하는 케어테이커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길고양이 이주 방식, 조합원 및 지자체 소통, 집중 TNR 등 전반적인 도움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돌봄을 위한 조력 제공
- 재개발/재건축 해당 지역 뿐만 아니라 길고양이 이주 예정지역의 주민들에게 길고양이 돌봄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공하는 교육적 측면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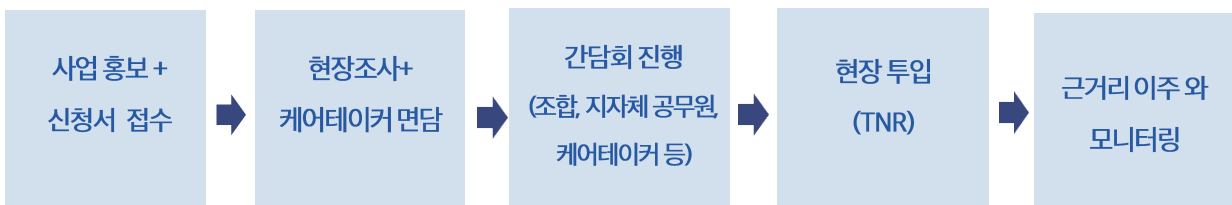
### <평가>

- 재개발/재건축 지역 현장에서 뛰며 길고양이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메뉴얼 수립
- 사업 진행을 하며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 변화 개선 도모
- 9월~11월간 집중 TNR을 매주 진행하고 도시정비구역 주민 대상의 반려동물 동물등록 지원을 이행
- 동물등록+중성화수술지원 사업을 SNS로 홍보하였으나 젊은 층의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대부분 동물등록과 중성화를 하므로 홍보 효과가 크지 않았음 → 12월부터 버스 광고 시작

# 활동 개요 및 사업지별 특징

## 1. |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활동 개요

### 활동 내용





## 2 | 관악구 봉천 4-2-1 주택 재개발지구

### 사업 규모

정비구역면적	건설 세대 수	길고양이 개체 수	밥자리 수
55,512 m <sup>2</sup>	997 세대	신청자: 마리 추정 (중성화율 80%) 이주자: 마리 추정 (중성화율 20%)	신청자: 10개 이주자: 10개

### 조직력 및 활동 내용

케어테이커 2명의 적극적인 활동	현장조사 간담회 이주지역 간담회	집중 중성화 <u>28마리</u>	치료 지원 <u>4마리</u>
-------------------------	-------------------------	-----------------------	---------------------

## 2 | 관악구 봉천 4-2-1 주택 재개발지구

#### 장 점

1. 재개발지역 중성화율 70%
2. 적극적인 케어테이커들
3. 급식소 설치 후 지속적인 급여, 관리 잘됨
4. 적극적인 이주지(아파트) 관리사무소
5. 임신묘 케어 등 보살핌이 잘 이루어짐

#### 아쉬운 점

1. 이주 예정지 케어테이커들과 의견 일치의 어려움
2. 이주 예정지 케어테이커들의 중성화수술 필요성 인식 부재
3. 고양이가 이주 시 관공서의 비협조적인 태도 (일시적인 고양이 급식소 설치 관련)

#### 사업지 특성

-고양이 이주 시, 높은 벽과 지하도로 등으로 막혀있어 나머지 공간으로 이주해야 했음. 이 때 주민센터의 도움이 필요했으나 허락 받지 못함





### 3 | 강남구 청담 삼익아파트 재건축

#### 사업 규모

정비구역 면적	건설 세대수	길고양이 개체수	밥자리 수
61,978 m <sup>2</sup>	1,230세대	신청지: 50마리 추정 (중성화율40%) 이주지: 알 수 없음	신청지: 10개 이주지: 5개

#### 조직력 및 활동 내용

케어테이커 규모: 5명	현장조사 간담회	집중 중성화 17마리	치료 지원 2마리
-----------------	-------------	----------------	--------------

### 3 | 강남구 청담 삼익아파트 재건축

#### 장점

1. 계류장 1곳 사용 용이성
2. 협조적인 건설사(길고양이 통로 마련)
3. 간담회 참석 및 사후 모니터링까지 조합의 적극적인 태도
4. TNR 90% 이상의 이주지(아파트)

#### 아쉬운 점

1. 이주지(근린공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관련 비협조적인 공원관리과
2. 날씨(장마)로 인해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 되지 못함

#### 사업지 특성

- 자연스러운 밥자리 이동으로 고양이 이주가 가능했던 지역(한 쪽이 고속도로로 막혀있었음)
- 이주지(2군데의 작은 근린공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허락의 어려움 -> 결국에는 설치했으나 몇몇 주민의 반발로 급식소 자리를 옮김



## 4 | 서대문구 홍은제13구역 주택 재개발

### 사업 규모

정비구역면적	건설 세대수	길고양이 개체수	밥자리수
36,220 m <sup>2</sup>	827세대	신청자: 50마리 추정 (중성화율70%) 이주지: 알 수 없음	신청자: 철거 진행상황 이주지: 없음(밥을 주고 바로 치우심)

### 조직력 및 활동 내용

케어테이커 규모: 1명	현장조사 간담회	집중 중성화 7마리
-----------------	-------------	---------------

## 4 | 서대문구 홍은 제13구역 주택 재개발

### 장점

1. 한 명의 케어테이커의 지속적인 길고양이 돌봄
2. 홍은1동 동장님의 협조적인 태로
3. 재개발 주변 주택가로 비교적 용이한 길고양이 이주

### 아쉬운 점

1. 철거 직전의 상황에서 사업 투입
2. 재개발 지역에 들개 출몰(길고양이 상해피해)
3. 조합의 비협조적인 태도

### 사업지 특성

- 카라 투입 시 이미 철거가 진행 중인 긴박한 상황이었음

- 케어테이커 한 명의 고군분투 현장



## 5 | 서초구 방배14구역 주택 재건축

### 사업 규모

정비 구역 면적	건설 세대수	길고양이 개체수	밥자리 수
27,460 m <sup>2</sup>	452세대	신청자: 60마리 추정 (중성화율 90%) 이주자: 70마리 추정 (중성화율 80%)	신청자: 10개 이상 이주자: 알 수 없음

### 조직력 및 활동 내용

케어테이커 조직력 좋음	현장조사 간담회 이주지역 간담회	집중 중성화 <u>8마리</u>	치료 지원 등 <u>9마리</u>
-----------------	-------------------------	----------------------	-----------------------

## 5 | 서초구 방배14구역 주택 재건축

### 장 점

1. 신청자와 이주자의 높은 중성화율
2. 치료 등 지속적인 길고양이 돌봄이 이루어짐
3. 케어테이커 자체적으로 하는 TNR 병행

### 아쉬운 점

이주가 먼 시점에서 조합내 갈등 상황이 있어  
TNR사업에는 비협조적이었음

### 사업지 특성

- 관리처분인가 단계이지만 이주가 0%인 상황
- 사방이 주택가여서 편한 길고양이 이주

-케어테이커 그룹의 적극적인 TNR 활동으로 높은 중성화율



## 6 | 중랑구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 사업 규모

정비구역면적	건설 세대수	길고양이 개체수	밥자리 수
44,725m <sup>2</sup>	1,055세대	신청지: 30마리 추정 (중성화율80%) 이주지: 알 수 없음	신청지: 7개 이주지: 7개

### 조직력 및 활동 내용

케어테이커 3명의 적극적인 활동	1차, 2차 현장조사 간담회	집중 중성화 11마리	치료 지원 등 7마리
----------------------	--------------------	----------------	----------------

## 6 | 중랑구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 장점

1. 케어테이커들의 결속력과 꾸준한 관심
2. 재개발지역 거주자가 아님에도 지속적 돌봄
3. 협조적인 조합(범죄 예방팀)

### 이슈운 점

1. 첫번째 현장조사시, 비협조적인 조합
2.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구내염 개체 수

### 사업지 특성

- 케어테이커들의 노력과 꾸준한 돌봄으로 가능했던 사업
- 이주지 길고양이 급식소 지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케어테이커 그룹
- 고가도로와 큰 도로로 막혀있었지만 한 쪽으로는 주거지와 밀접해 다행히 원활했던 길고양이 이주





## 7 | 동대문구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 사업 규모

정비구역 면적	건설 세대수	길고양이 개체수	밥자리 수
65,338m <sup>2</sup>	2,099세대	신청자: 70마리 추정 (중성화율 80%) 이주자: 알 수 없음	신청자: 10개 이상 이주자: 8개 이상

### 조직력 및 활동 내용

케어테이커 조직력 매우 좋음	1차, 2차 현장조사 이주지역 간담회(아파트)	집중 중성화 <u>23마리</u>	치료 지원 <u>3마리</u>
--------------------	---------------------------------	-----------------------	---------------------

## 7 | 동대문구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 장점

1. 재개발지역 높은 중성화율
2. 3개소의 계류장 관리 및 개체 돌봄
3. 케어테이커 그룹의 높은 결속력
4. 자체적인 치료 돌봄 및 입양활동(모범적 사례)

### 아쉬운 점

1. 길고양이 상해 및 살해(추정)범죄지역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아픈 개체 수)
2. 재개발 주변이 전철과 지하도로 막힌 구조

### 사업지 특성

-단합이 잘 되는 케어테이커 그룹 → 길고양이 세심하고 지속적인 돌봄이 잘 이루어짐

-아픈 개체, 다친 개체수가 매우 많아 지속적인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상태 → 계류장이 많아 세심한 돌봄이 가능한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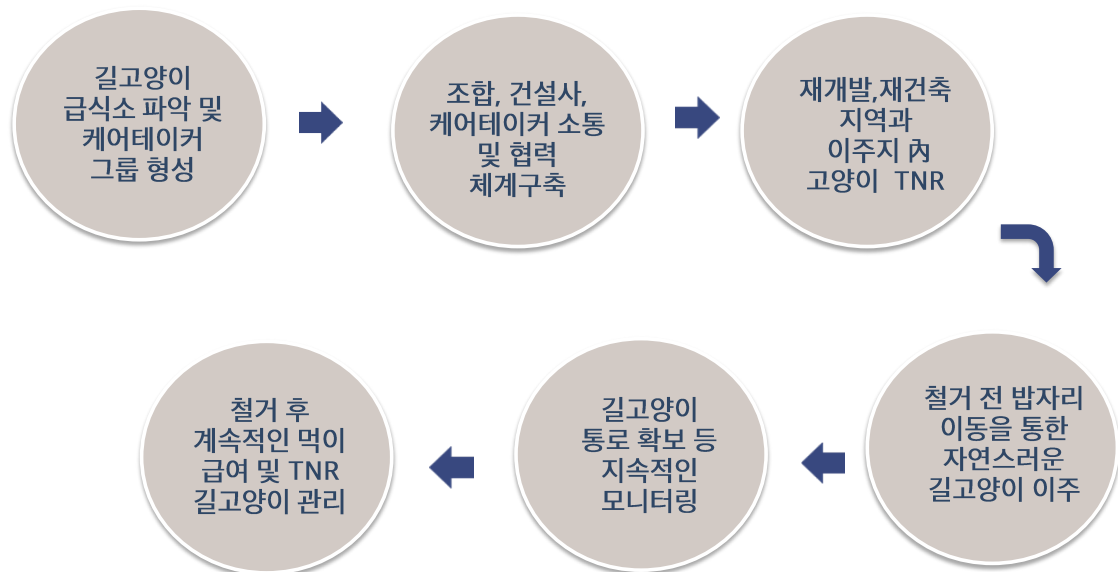




# 사업의 기대효과

## 1 | 사업의 기대효과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메뉴얼 수립으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케어테이커들이 길고양이 보호에 적극적으로 앞장 선다.



# 나아갈 방향

## 1 | 나아갈 방향

### 도시정비구역 케어테이커의 길고양이 보호에 대한 이해

- 도시정비구역은 케어테이커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 케어테이커 조직력이 요구 됨
-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이주에 대한 이해도 부족  
→ 케어테이커 교육 필요
- 이주 했을 경우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므로 지속적으로 길고양이를 보호하고 케어 할 수 있는 지식 필요
- 도시정비구역 특성 상 지속적인 돌봄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상대적으로 구내염 등 질환을 앓고 있는 길고양이가 많은 상황  
→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지속력 있고 책임감 있는 돌봄 필요

###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 매뉴얼 수립

- 공원, 관공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등 동물보호 및 생명 보호 활동에 앞장서는 노력이 필요함
- 현행 지자체 TNR 안전한 정책 수립, TNR 지정병원에서의 수술 안정화
-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 활동에 대한 구체적 매뉴얼 수립(TNR, 밥자리 이동을 통한 안전한 이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돌봄)

# 1 | 나아갈 방향

## 도시정비구역 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관할 지자체, 조합, 건설사 등 이해관계자의 생명 보호에 대한 인지 부족
- 제도적 장치 부재는 이해관계자의 비 협조로 귀결
- 동물 보호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한계로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의 빠른 진행을 도모하는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움
-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동물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마련 및 개선 운동



감사합니다

발제 02

---

길고양이 보호에 대한  
서울시 과제

---

윤민

주무관 | 서울시 동물복지과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길고양이 보호에 대한  
서울시 향후 과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윤민  
2020. 12. 22.

## 서울의 길고양이와 TNR사업



### 개선) 3. 재개발, 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보호 참여강화 및 기타 제도개선

-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권장인 자치구청장의 적극적인 사업참여 독려  
서울시(2021년까지) → 공모를 통한 자치구 사업으로 변경(2022년)  
준비사항 : 정비구역 사업매뉴얼 및 사례집 제작 완료(2021년)
- 유기동물로 구조된 건강상태가 양호한 길고양이의 경우 중성화하여 구조  
장소에 방사가능(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2021년 개정, 발의완료)
- 길고양이 서식현황 모니터링 지속(2년주기, 2021년)
-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목표에 따른 개체수 변화추이 분석(2021년)

감사합니다.

### 개선) 1. 자치구 TNR 중성화 사업 개선(안) 마련 중

- 사업자 선정방식(안) : 최저가 전자입찰 →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정 또는 협상계약)
- TNR 제외 대상 변경 : 수태 혹은 포유가 확인된 개체  
(단, 마취 후 수태가 확인되거나 수술의 안전확보가 가능하다고 수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을 할 수 있다.)
- TNR 중단시기 변경 : 장마철, 혹서기, 혹한기(예, 영하 10° c 이하가 3일 지속되는 경우) 등의 외부 환경으로 중성화 수술 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성화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단, 수술 후 길고양이의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 기타 포획 및 이동, 수술방법, 처리기록관리 등 강화된 표준지침 마련

### 개선) 2. 시민참여형 길고양이 집중 중성화 시스템 및 교육 강화

- 동물복지지원센터 구로 “길고양이 집중 중성화 동물병원” 운영  
지역선정 → 집중 포획(캣맘) → 중성화(자원봉사자) → 방사(캣맘)

146명 참여, 222마리 중성화  
(2020년 10회 시범운영)



- 길고양이 중성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021년 예정)  
TNR동물병원 포획방사자 관리, 길고양이 자원봉사자, 수의사 등 역량강화
- 길고양이 공원 급식소 지원 및 민관 협력 중성화 사업 강화(2021년 예정)

## 길고양이 TNR사업의 문제

### 1. 길고양이 관련 주민간의 갈등 지속

- 애묘인측 민원 :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TNR시행
- 싫어하는 민원 : 번식기 소음, 투쟁 등 불편민원

### 2. TNR사업 길고양이의 제외대상, 사각상황 발생

- 중단 대상 : 수태 혹은 포유가 확인된 개체 (단, 마취후 확인된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을 함.)
- 중단 시기 : 장마철, 혹서기, 혹한기 등 외부환경 요인으로 수술 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 3. 자치구 TNR사업 위탁사업자에 대한 불신 증폭

- 중성화 시술비 허위 청구, 불성실한 처치 등 불신, 동물포획 및 방사의 문제 지적

### 4. 개체 수 조절 목적의 TNR사업 실효성 문제 지적

- 개체 수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전체 개체군의 70%이상, 매년 15%이상 중성화 필요
- 건강한 개체(번식력이 왕성한)는 포획 성공율이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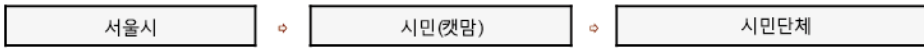
### 5. 유기동물로 구조된 길고양이 안락사 문제 지적

## 서울시의 향후 과제

## 서울시 길고양이 공원 급식소

### ■ 길고양이 공원 급식소 운영

- 시민단체, 시민(캣맘)들과 함께 길고양이 공원급식소 운영



•공원급식소 설치



•급식소 운영



•중성화 수술(중성화율 70%유지)

구분	급식소	총개체	중성화개체	중성화율('20. 6월 기준)
서울숲공원	10	72	65	90.2%
월드컵공원	3	20	20	100%
보라매공원	10	86	86	100%
하늘공원	4	34	24	70.5%
난지천공원	2	-	-	-
여의도공원	5	12	12	100%
북서울꿈의숲	5	51	49	96%
계	39	275	256	93%

## 길고양이 보호 문제점



##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 ▪ 민-관 협력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 서울시가 매년 공모를 통해 중성화 매칭할 동물보호단체를 선정(시 : 1만원, 단체 : 2만원)
- 다양한 동물보호단체들 참여

단체명	계 획	총 계
<b>201년</b>	564	<b>572</b>
한국고양이보호협회	250	<b>252</b>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80	<b>101</b>
케어	100	<b>100</b>
팅커벨프로젝트	50	<b>50</b>
한국고양이연맹	84	<b>69</b>

단체명	계 획	총 계
<b>201년</b>	650	<b>552</b>
한국고양이보호협회	250	<b>251</b>
팅커벨프로젝트	100	<b>100</b>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50	<b>50</b>
(사)한국고양이연맹	100	<b>100</b>
한국동물복지시민연합	150	<b>51</b>

##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 ▪ 길고양이 중성화날(TNR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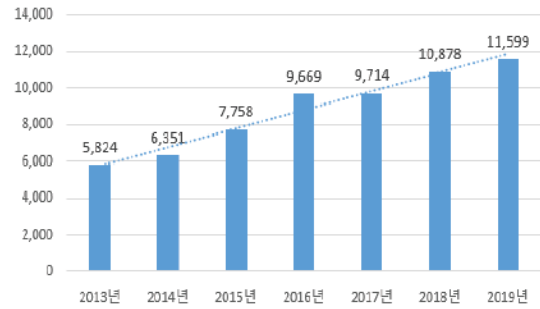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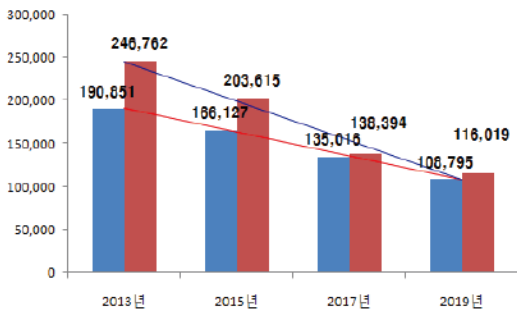
- 자원봉사자 수의사, 대학생, 시민들과 함께 일정 지역을 선정 집중 포획 및 중성화 추진(연4회)



단체명	회	마리
201년	2	<b>88</b>
201년	4	<b>225</b>
201년	4	<b>150</b>
201년	4	<b>159</b>

## 길고양이란 ?

- **법적 정의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구조. 보호조치 제외 동물)**
  - 길고양이 :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 장소에 방사하는 고양이
- **대도시 서울의 길고양이 개체 수와 중성화 마리 수**



## TNR사업

##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 ▪ 자치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 자치구별로 동물병원 또는 동물보호단체와 지방계약법에 따라 매년 계약(1만원 내외)
  - 대부분 전자입찰, 수의계약, 기타
  - 전자입찰 선정방식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연도	총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마리	84,150	4,085	4,929	5,896	4,719	5,497	6,003	6,351	7,756	8,487	8,934	10,312	11,181

토론 01

---

##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길고양이 돌봄 활동

---

최혜민

케어테이커 | 휘경냥이 대표

##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길고양이 돌봄 활동

최혜민 (동대문구 휘경3재정비구역 케어테이커)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케어테이커로 활동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양이를 보호 할 생각은 없었다. 거주지가 재개발지역이 아니고, 고양이에게 밥과 약만을 제공해줬을 뿐 학대의 위험 때문에 손을 태우지 않는 등의 본격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곳곳에서 재개발이 시행되며 그 구역에 살고 있는 고양이를 생각 하면서 그 후 많은 것이 달라졌다.

재개발지역 고양이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가장 먼저 동물 구조 단체에 도움을 청했다. 당시 알고 있고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활동은 지자체 TNR 사업과 한국 고양이보호협회를 통한 치료였다. 그러나, TNR 사업에서 케어 테이커가 주체가 되어 직접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다. 하지만 길고양이 관련 이슈는 너무 많기에 궁금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없었다.

그래서 본격적인 아이들 치료와 홍보, TNR 활동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개인 봉사자수준의 케어테이커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았고 매뉴얼이 없어 시작은 너무 초라했다. 입양을 보내고 싶어도 입양이 잘 안됐고 TNR의 속도가 좀처럼 나지 않았다. 심지어 악질 학대범이 있어 고양이들이 계속 다치거나 죽었고 그 일을 신경 쓰느라 TNR, 입양 등의 일은 더욱 진전이 없었다.

결국 동네 마스크트였던 고양이 한 마리가 학대범에 의해 다리가 꺾이고 내리치는 사고를 당했다. 끔찍하게 죽음을 맞이했고, 다른 형제 고양이는 그 고양이가 죽은 곳을 맴돌았다. 재개발 지역이라 길고양이를 학대하기에 너무나도 용이한 환경이었던 것이다.

결국 그 사건은 cctv와 목격자 등 정황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받는 이는 없었고, 자연스럽게 묻히게 되었다. 처벌이 없으니 그 이후로도 학대 사건은 계속 발생했고 철거 일은 다가오고 있으나 이루어 놓은 것은 많지 않았다. 아직도 그 학대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그 학대범은 결국 케어테이커들에게도 정신적, 신체적 위협을 가했고 경찰서에서는 도움을 요청해도 가끔 나오는 순찰 외에는 다른 피드백이 없었다.

이런 사건들을 겪으며 느꼈던 것은 재개발 지역의 특성 상 케어테이커와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cctv나 비상벨 같은 안전장치의 체계적인 마련과 우범지역 동물 학대에 대한 초동 대처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수사과 처벌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본격적으로 거주민의 이주가 이루어지는 관리처분인가 단계의 재개발지역은 사실 길고양



이들이 지내기엔 최적의 장소이다. 사람이 없고 쉬고 잠자기 편한 빈집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쌓여가는 폐기물과 쓰레기 위험한 철거 잔해물, 학대범이 다니기 좋은 환경으로 고양이들은 점점 위험에 노출된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병에 걸리거나 다치는 일도 잦아진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케어테이커들은 고양이들을 매우 각별하게 보살피주고 있다. 길고양이의 평균 수명을 훌쩍 넘어 5년 이상 장수하는 고양이들도 많다. 하지만 재개발이 시작된 후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구내염을 앓는 고양이들이 점점 늘어가고, 고양이들 대다수가 영양 부족으로 빈혈 수치가 낮았다. 면역력이 떨어지며 생긴 결과이다.

아픈 고양이들은 급식 시 약을 급여하나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하다. 사람이 없는 재개발 지역이라 버린 유기묘, 사람 손을 타서 학대범에게 쉽게 표적이 될 수 있는 고양이,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힘든 어린 고양이들이 너무도 많다.

**재개발로 인해 원서식지를 잃는 고양이들에게는 치료와 보살핌, 안전한 곳으로의 이주와 기회가 된다면 좋은 가정으로 입양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소한의 보호 활동이 결코 쉽지 않은 곳이 바로 이런 재개발지역이다.

우리 동네 케어테이커 커뮤니티인 ‘휘경냥이’는 재개발조합 측에 양해를 구해 공사 여러 곳을 계류장으로 이용했다. 취지는 손 타는 고양이들과 어린 새끼들이라도 학대범에게 벗어나 게 해주자는 것이었으나 계류장의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첫째** 처음 취지대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다.

**둘째** 계류장이 있으니 지자체 TNR을 모든 케어테이커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어 효과가 컸다. 계류장이 생긴 후로 낱짜를 지정하기 쉬웠고 고양이들을 미리 포획할 수 있어 더 많은 고양이들의 TNR이 가능했다.

**셋째** 아픈 고양이들이 계류장 안에서 안정적인 회복기간을 가질 수 있었다. 계류장이 생기니 고양이들에게 꾸준히 약을 주는 것이 가능했고 그에 따라 회복도 빨라졌다. 질병의 재발률이 줄어드니 발생하는 비용 또한 절약되었다.

**넷째** 케어테이커들이 사용하는 비품을 보관하여 그것을 이용해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무게가 나가는 포획틀과 사료 등을 두고 다니니 그에 따르는 노력을 다른 곳에 분배할 수 있었다. 특히 주변 환경 미화에 더욱 힘을 쓸 수 있었다. 주민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 깨끗한 환경을 위해 노력할 수 있었다. 이런 모습들이 주민들에게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케어테이커 활동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케어테이커 개인이 조합의 협조를 구해 간신히 마련한 계류장은 그 한계가 분명했다. 공식적인 계약이나 철거 기한이 없으니 조합, 철거 업체, 케어테이커 그룹 간의 소통

이 어느 한 곳이라도 어긋난다면 계류장 안의 고양이를 보호 할 수 없었다. 갑작스러운 철거로 고양이들의 계류장 창문이 부서지고 위험에 처하는 일도 있었다. 계류장 보수와 다른 계류장을 급하게 구했지만 그것도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하였다.

**재개발지역의 길고양이 보호 및 이주를 위한 계류장이 제도적으로 확립된다면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장점을 취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조합과 케어테이커 간의 갈등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길고양이 보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아직 따뜻한 시선이 아니기에 이익집단인 재개발 조합 측과 케어테이커 그룹 간의 협력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확립이 된다면 소모적인 갈등은 피하고, 고양이 구조 및 이주 활동이 더욱 용이할 것이다. 나아가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계류장 철거로 많은 시간과 인력, 감정이 소모 되었고, 현재도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의 계류장이 곧 철거될 상황이라 막막하고 위급한 상황이다.

지자체에서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들을 케어테이커들과 동물보호 단체들이 현재 노력하고 있다. 재개발지역에 안정적인 계류장 확보, 학대 방지 관련 홍보물, 지자체의 이름이 들어간 고양이 급식소, 겨울집 안내문, 길고양이 인식 개선 활동 등 약간의 지원만 있다면 재개발지역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특히 공식 급식소 운영을 하게 된다면 재개발로 인한 서식지의 변화가 있더라도 급식소 이동만으로도 안전지대로의 이주가 용이할 것이다.

길고양이 보호 활동은 정말 작은 제도와 지원 하나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아직 미비하여 안타까운 것이 많았다. 공공기관에서의 관심과 지원으로 점차 사람들의 인식도 개선되며 좀 더 여유로운 사회가 되길 바란다.

토론 02

---

##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 동물유기문제 및 해결책

---

김현숙

주무관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토론 03

---

길고양이 상생사회를  
위한 케어테이커들의  
노력

---

양미연  
케어테이커 | 중랑길친 대표

# 길고양이 상생사회를 위한 케어테이커들의 노력

양미연 (중랑구 중화1재정비구역 케어테이커)

## □ 중랑길고양이 친구들(중랑길친)소개

- 2018년 4월 캣맘끼리의 소통 및 고충 나눔을 위한 소모임을 (지자체 주민제안사업 선정되어) 시작함
- 캣맘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 모색(캣맘 강연/ 겨울집, 보온물그릇만들기/ 지자체축제 참여/ 지자체 길고양이정책 제안/지역민원 해결노력/공식급식소 시범운영 및 확대/어린이 생명존중 교육/ 민원지 캠페인/ 인식개선 현수막 설치/ 학대의심사건 경찰과 공조/ 비인도적 동물실험항의 기자회견-서울대 의학연구소 앞)

## □ 중화1재정비촉진지구 길고양이 이주사업 동물권행동 카라와 함께 진행 중

- 재개발지역 이주가 진행되자 길고양이들의 해방구가 형성(공식급식소가 있었던 주민센터 마당)
- 1차 사업선정지역에서 탈락 후 독자 해결방법 모색
  - 조합과의 소통시도 (거절 + 한 달 내 급식소 철거 요구)
  - 지자체 도시계획과에 길고양이이주관련 협조공문을 조합(철거업체)에 넣어달라고 민원올림. 내용은 급식소 이동보장/ 생태통로 마련/ 철거일정 공유/ 철거 전 동물 내보내는 확인 작업 등 요구
  - 협조적이던 범죄예방업체에서 민원 넣었나면서 급식소 당장철거를 요구했고 다음날부터 수일간 급식소를 반복적으로 훼손
  - 확인해보니 도시계획과에서 구청의 입장이 아니므로 민원(중랑길친명의 공문)그대로 조합에 보냈고, 길고양이 인식과 이해도가 전무한 조합에서 방법팀에 클레임을 심하게 넣었기 때문
  - 관련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지자체 동물복지팀에서는 공식급식소 회수를 요구
  - 지역에서 동물권에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에게 도움요청(비서관이 관련조례 긍정검토 및 조합소통을 위한 다리로 구의원과 연결해줌 → 조례자료를 요구해서 보냈으나 다음 회기 때 가능하다고 최종 연락받음)
- 이후 포기하지 않은 노력 끝에 방법팀과의 소통이 회복되었고, 카라의 2차 사업선정 소식을 듣고 재신청하여 카라에서 <조합/구청 동물복지팀/서울시사업 담당공무원/지역 내 케어테이커>의 논의 테이블을 주선해주었음. 이후 조합에 양해된 사업들이 진행 중

## □ 재개발지역 길고양이 이주 사업 중 느낀 문제점

- 1) 도시계획 속에는 동물의 자리가 없음
  - 동물의 기본적 생명활동이 가능한 환경이 아님(녹지, 식수, 먹이 등의 결핍)
  - 동물의 본능적 행동에 대한 혐오(똥, 발정울음, 영역다툼소음, 겨울철 따뜻한 곳 자리잡음)
  - 사람은 하루아침에 이사 갈수 있지만 영역동물인 고양이는 쉽게 떠나지 않음(장기간에 걸친 점진적 이동노력이 필요하나 그에 관한 인식이나 정책이 부재)
- 2) 이주예정지/ 재개발지역 케어테이커들 연결이 어려움
  - 케어테이커들은 부정적 사회인식으로 인해 음지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음
  - 활동을 원하는 사람도 안정적인 급식소가 없어 곤란함



- 개별 케어테이커들의 개성이 강해 단일행동이 어려움

### 3) 지자체조차 외면

- 도시계획과 : 길고양이 이주에 대한 인식부재 / 지역 내 동물보호단체의 공문을 구청 인장없이 그냥 단순 전달하여 상황악화에 일조함
- 공원녹지과 : 이주예정지의 공원에 급식소운영허락을 요청했으나 민원소지 있다며 단번에 거절
- 동물복지팀 : 이동 중인 공식급식소가 지정위치를 벗어났으므로 민원의 소지가 있다며 회수요구/ 이주지역 급식소를 확보해달라는 케어테이커의 요청에 대해서는 침묵/ 이동 중인 재개발지역 급식소에 “치우는 분 연락바란다” 는 복사지 한 장 붙여줌

### 4) 조합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움

- 동물보호에 대한 협조는 선택사항이지 의무가 아님
- 이익집단이므로 동물보호에 관심이 없음

## □ 케어테이커 단체로서의 제안

### 1) 도시계획단계에서 동물의 자리가 있어야 민원발생 소지가 줄어들

- ① 녹지와 공원 내 급식소 의무화
- ② 건축 시 의무녹지를 동물과 공유
- ③ 도시민들에게 생명존중 교육/캠페인
- ④ 재개발 시 동물이주 및 보호에 대한 정책/매뉴얼이 필요

### 2) 케어테이커 네트워크의 중요성

- ① 지역 내 케어테이커 단체가 있다면 현장 관리 및 대응/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동물보호사업/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윈윈(win-win)효과
- ② 케어테이커들의 양성화- 매뉴얼이 필요
- ③ 케어테이커 발굴/관리/교육의 필요성
- ④ 창구를 마련해야 개별 민원의 소지가 줄어들
- ⑤ 이미 사회적문제화 된 길고양이이슈를 개개인이 해결하도록 떠넘기면 안 됨

### 3) 정책과 행정측면

- ① 정책(법)이 있어야 행정의 통일성이 확보
- ② 부서 간 다른 이해관계 →조정과 협력이 필요
- ③ 공무원 생명존중교육의 필요성
- ④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는 것이 행정에도 유리(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정책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진행할 인력)

### 4) 재개발지역 동물보호정책마련으로 조합/시민과의 공조를 용이하게 할 근거가 필요

토론 04

---

위험한 환경 속  
길고양이치료 안정성  
마련을 위한 방안

---

서정주  
수의사 | 이플동물병원 원장

## 위험한 환경 속 길고양이 치료 안정성 마련을 위한 방안

서정주(수의사, 이플동물병원 원장)

길고양이 케어테이커들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주변 환경에 대한 배려심과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라 안타깝다. 많은 분의 케어테이커들과 교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교류가 있는 케어테이커들의 길고양이들에 대한 애정은 대단하다. 개인 주머니를 털어서 아픈 고양이들 입원 치료 수술 등을 시키고 회복되면 다시 방사나 입양처를 알아보는 등의 노력들은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항상 위험에 노출 되어 있는 길고양이들의 처지를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면 좋겠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길고양이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오해를 하면서 케어테이커들과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개인 케어테이커들이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지자체에서는 프랭카드 등을 이용하여 이러한 선입견과 오해를 해소 할 수 있는 안내를 지속적으로 해서 갈등을 해소하여 케어테이커들이 안전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케어테이커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들 케어테이커들과 지역 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모든 지역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내용들이 매뉴얼화 되어 교육 되어야 한다. 실제로 초보 케어테이커들의 미숙한 길고양이 관리에 의해서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TNR 효과가 좋은 곳은 케어테이커들의 사후 관리가 잘 되는 곳들이다. 현재 지자체 TNR은 민원을 쫓아다니면서 해소하는데 급급한 면이 없잖아 있다. 물론 민원 해결도 중요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행한 TNR 역시 그에 부합하는 효과를 얻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지역 주민들한테는 길고양이는 이제는 함께 해야 하는 자연환경으로 인식하게 하고 개체 수 등이 케어테이커들에 의해 잘 관리되면 불편한 민원 발생이 줄 수 있다는 사실과 무조건 고양이를 없애라는 민원은 주변 지역 고양이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같은 불편함이 반복됨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TNR과 케어테이커들의 활동 취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TNR이 효과적이려면 방사 후 생존율이 높아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사는 고양이의 개체수가 일정하게 유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의사의 수술 능숙도, 길고양이의 건강 상태 (체중, 임신여부, 질병여부), 제대로 된 술 후 사양관리 등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TNR은 케어테이커들의 관리가 잘되는 지역의 군집 TNR을 해야 그 기대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방사 후 관리 미흡으로 길고양이들이 잘못되어 개체수가 줄어들면 주변 지역에 있던 고양이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어 그 동안의 노력이 헛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각 지자체 별로 직영 보호소 설립하는 곳이 늘기 시작했다. 입찰 등에 의한 유기동물보호 및 TNR 업체 선정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 TNR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시에서 수술 및 술후 계류 장소(직영보호소)와 의료 소모품 등을 제공하고 지역 수의사회의 자발적인 수술 참여, 술후 사양관리 및

지역 방사에는 케어 테이커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몇 년 전 대만에서 지역 TNR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대만에서는 각 지역 케어테이커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고 특정 지역 TNR을 하게 되면 TNR한 개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여 그 지역 고양이에 대한 데이터도 만든다고 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지역 고양이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서 포획 되는 경우에는 담당 지역 케어테이커들한테 연락해서 관리 상태 등을 다시 확인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 것은 민관 협조가 아주 잘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되어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였다. 당장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기는 힘들겠지만 TNR이 효과적으로 잘되고 있는 지역 또는 나라의 시스템을 벤치 마킹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버려진 동물을 위한 수의사의 활동을 통해, 지역 TNR 사업을 통해 또 케어테이커들의 자비를 털어 부탁하는 TNR 등을 십 수년동안 한 결과 TNR은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인간이 다른 동물의 생존권에 감히 관여를 하는 것으로 그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하트마 간디가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고 했다. 인간의 기준으로 하찮은 생명이라고 해도 존중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고 그에 부합하는 현명한 정책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질의응답

---



